

요약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21세기는 생명 존중, 인간과 자연의 공존, 문화의 시대이며,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민행복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 -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 고르게 문화를 향유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의 범위와 도시의 규모에 따른 지역 간의 문화향유기회와 만족도의 격차를 분석하고,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음
 - 시간적으로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하며, 통계분석은 전국 230개 시군자치구를, 지역주민 면담조사는 사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한 조사양식을 이용하여 1:1로 심층 면담조사하였음
 - 지역 간의 생활문화격차 원인과 정도를 분석하고,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, 문헌조사, 통계조사, 지역주민 면담조사,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였음

2. 국내외 지역문화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

-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정책 동향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
 -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68년 문화공보부 발족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관련법규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1980년대에는 지역문화를 육성·활성화하기 시작하였음

- 1990년대에는 문화와 지역발전의 연계를 통한 문화복지를, 2000년대에는 문화와 도시재생의 결합을, 2010년대에는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를 도모하였고, 최근에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
 - 그러나 현재의 문화정책은 지역문화정책의 지향점이 불분명하고, 지역의 특성과 비계량 요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며, 지역문화정책 추진부처 간의 협력체계도 미흡
- 주요 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문화를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, 적극적인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 -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그동안의 정책에서 문화시설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
 - 지역문화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분담체계를 마련·운영하고 있음
 - 지역문화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확보방안들을 적극 강구하고 있음
 - 지역문화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매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

3.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

-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공급차원에서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수요차원에서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
- 문화향유기회의 격차는 지역의 주요 문화시설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평균(절대적 격차)과 변이계수(상대적 격차)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
 - 문화향유만족도의 격차는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

-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조사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, 전체적으로는 통계분석결과와 지역주민 면담조사가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계획하였음

<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틀>

분석목적	분석관점	분석방법	분석항목			
			문화시설	문화콘텐츠	향유기반	향유정도
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	문화향유 기회의 격차 (공급차원)	통계자료 분석	-문화시설의 개수 -문화시설의 면적	-문화프로그램수 -연간 문화공연일수	-문화시설 직원수 -운영예산 규모	-관람객 수 -문화시설당 집객력 -프로그램당 집객력
	문화향유 만족도 격차 (수요차원)	지역주민 면담조사	-선호시설 방문횟수 -시설이용 만족도 -시설로의 접근성	-선호콘텐츠 활동빈도 -문화활동의 행태 -문화활동 제약요인	-활동의 지역적 범위 -인접시설 이용도 -만족도 제고 항목	-문화인식 및 체감도 -향유의지와 수요 -할애가능 시간비용

□ 문화향유기회 여건을 도시규모별로 통계분석한 결과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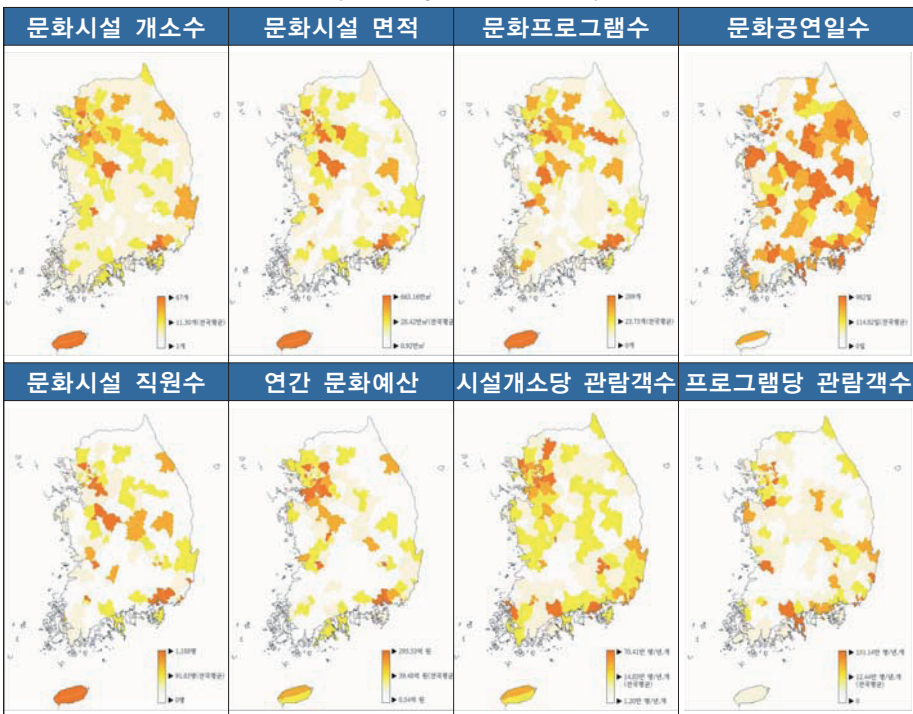
- 인구 30만 명 이상인 중대도시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가장 양호하였으며,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며, 분석항목의 도시 간 격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
- 특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30만 명 이하인 중소도시나 군급도시보다는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양호하고,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지만 분석항목의 도시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
- 군급도시는 다른 도시규모에 비해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불리하고, 문화시설의 규모도 작으며, 분석항목의 도시 간 격차도 특광역시 자치구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음
- 특히, 전국 84개 군급도시의 91.7%인 77개 군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시설인 영화관이 없는 이른바 “문화시설 사각지대”로 나타났음

<도시규모별 문화시설 미입지 현황>

구 분	도시수	도서관		박물관		미술관		문예회관		지방문화원		영화관		과학관	
		개수	(%)	개수	(%)	개수	(%)	개수	(%)	개수	(%)	개수	(%)	개수	(%)
자 치 구	69	0	0.0	17	24.6	47	68.1	23	33.3	3	4.3	11	15.9	49	71.0
중대도시	25	0	0.0	2	8.0	9	36.0	4	16.0	0	0.0	0	0.0	14	56.0
중소도시	52	0	0.0	3	5.8	36	69.2	7	13.5	1	1.9	14	26.9	35	67.3
군급도시	84	0	0.0	13	15.5	57	67.9	18	21.4	1	1.2	77	91.7	65	77.4
계/평균	230	0	0.0	35	15.2	149	64.8	52	22.6	5	2.2	102	44.3	163	70.9

- 문화향유기회 여건을 지역별로 통계분석한 결과,
 - 도지역의 문화향유기회 여건은 특광역시 자치구보다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,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공연일수를 제외한 모든 분석항목에서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경기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의 개소수는 비슷하지만 규모가 큰 문화시설이 많으며, 운영예산도 크고, 연간 관람객수도 많은 반면, 북부지역은 거의 모든 면에서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서울 강남지역은 강북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문화시설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, 프로그램당 관람객수가 많은 반면, 강북지역은 규모가 작은 문화시설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람객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
 - 행복생활권(중추형, 도농형, 농어촌형)은 모든 분석항목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향유기회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

<지역별 문화향유기회 여건 분석도>



-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만족도를 면담조사한 결과,
 - 문화인식에 있어서는 문화하면 연극·영화, 음악·미술, 전시·관람을 떠올렸음
 - 문화정책체감도에 있어서는 거주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.5점으로 나타났음
 - 문화향유경험에 있어서는 지난 1년 동안 자주 이용한 문화시설로는 도시규모와 무관하게 영화관, 공연장·문예회관, 도서관이 전체 이용의 61%를 차지하였으며, 박물관, 문화체육센터, 미술관을 포함하면 전체 이용의 83%에 해당
 - 문화향유행태에 있어서는 문화활동의 대부분은 시군구 내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가용으로 30분 이내에 위치한 문화시설에서 영화·콘서트·연극·뮤지컬 관람과 같은 단순관람형태의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
 - 문화향유만족도에 있어서는 문화시설의 이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.3점이었으며, 불만족 이유는 비싼 요금, 교통 불편, 주변의 편의시설 부족 등이었음
 - 인접 시군구의 문화시설은 영화관 이용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, 공연장, 박물관, 문예회관, 체육시설이 전체의 86.9%를 차지하였고, 근거리는 영화관, 먼거리는 박물관·공연장·전시장 등을 주로 이용하였음
 - 문화적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, 문화정보 제공 및 무료 순회공연 확충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 - 문화향유 의지와 수요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연극·뮤지컬, 음악·콘서트, 체육스포츠, 강연·강좌·교육, 영화감상 등 단순관람형 활동들을 선호하였음

<문화활동의 선호도 변화 비교>

구 분	영화·비디오	도서관 이용	체육스포츠	음악·콘서트	연극·뮤지컬	강좌·교육
현재 순위	1위	2위	3위	4위	5위	6위
향후 순위	5위	14위	3위	2위	1위	4위

- 원하는 문화활동을 위해 자가용을 이용해 현재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, 문화활동비 지출도 다소 늘리는 등 문화향유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

4.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

-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,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음
 - 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향유기회 확대,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향유만족도 제고, 지역의 문화향유기반 강화
- 첫째, 복합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화시설 사각지대 해소
 - 문화기본법에 문화시설의 정의와 복합문화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, 행정적·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세금면제나 할인조항도 마련하여야 함
 - 지역 내 적절한 지점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별 이용빈도와 이동거리, 다양한 편의시설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 - 특히, 군(郡)지역에 영화관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

<이용빈도와 이동거리에 따른 문화콘텐츠 구분>

이용빈도	주요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	이동거리
다수가 자주 이용	-강연·강좌교육, 영화·비디오 감상, 도서관 이용, 체육·스포츠 등	근거리
소수가 자주 이용	-공예·조각 등	중거리
소수가 가끔 이용	-문학·창작시, 무용·발레, 미술관 관람, 박물관 관람, 회화·서예·사진, 전통문화 전수 등	중장거리
다수가 가끔 이용	-연극·뮤지컬, 음악·콘서트 관람 등	장거리

- 둘째,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공동이용방안 마련
 - 인접지역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징있는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함
 -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이 시설의 규모는 크지만 이용빈도가 낮은 문화시설은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 - 현재 추진 중인 행복생활권에도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공동이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

- 셋째, 수요맞춤형 문화콘텐츠 제공
 -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고려한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향유부담을 완화하고, 새로운 문화향유 동기도 부여하여야 함
 - 또한,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보완하고, 예술인이 생산한 문화콘텐츠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여야 함

- 넷째,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 확보
 - 문화정보 제공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문화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
 - 공급자와 수요자가 온라인을 통해 문화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,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창출해야 함

- 다섯째,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활용 강화
 -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
 - 문화를 이용하여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, 중앙정부에서는 거버넌스의 활용과 활성화를 권장하고, 지자체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, 운영,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지침이나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- 여섯째, 문화시설의 관리방식 개선
 - 문화시설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나 근거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, 문화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의 자격, 역할, 관리·감독방식 등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

- 일곱째, 지역문화관련 법·제도의 개선
 - 지역의 문화향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관련 법률 및 계획 간의 위계를 정립하고, 관련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하여야 함
 - 또한,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규정을 개선하고, 문화도시·문화지구, 시범도시 등 관련규정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